전법 일기

부처님 법으로 맺어진 인연 천년전우, 함께하리라 군승!

2017년 6월 30일 군종 75기로 임관했다. 사명감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 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첫 소임지는 5사단 연대에서의 시작이었다. 사단마다 상징하는 모토가 있는데, 5사단은 '천년전우(千年戰友)'이다. '전우(戰友)'라는 존재가 천 년을 이어나갈 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다.

첫 소임지를 가기위해 지도를 보니 위도상 개성보다 더 위에 있는 경기도 끝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곳에서 첫 법회의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여름이었다.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날이 첫 법회였다. 오전 9시에 대대 법회를 시작하기에 내가 있는 법당에서는 늦어도 오전 8시 20분에는 출발해야 대대 법당에서 여유롭게 법회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다. 그 전날에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 법당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여 발 디딜 틈도 없는 빼곡이 앉아 있는 법당에서 첫 법회를 진행하였다.

내가 맡은 연대법당은 오전 10시 30분 법회 시작이라 대대에서 40분정도 진행하고 연대 법당으로 와야 했다. 첫 법회라 너무 떨리기도 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없이 지나갔다.

점심을 먹고 GOP 안에 있는 법당에 가서 진행을 하였다. 연대 법당에서 가는 시간만 50분! 점심공양을 간단히 하고 전방으로 향했다. 몇 개의 문과 검문소를 거치면서 긴장 속에 GOP 법회도 무사히 마쳤다. 전방에서의 법회에 참석한 용사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GOP 법회와 수색대대 법회를 마치고 연대법당에 도착하니 오후 5시였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신병교육대 야간법회를 하고 법당에 오니 오후 10시 30분이 되었다.

영화 〈황진이〉를 보면 서경덕 선생의 질문으로 황진이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다.

"자연이 너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것은 자연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삶에 연연하는 너의 이기적인 마음이다."

"제가 그 마음을 버린다면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모두가 너와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리요, 그게 너의 참모습이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법회를 하고 법당에 돌아와 차를 한잔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영화 〈황진이〉에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첫 소임지, 부처님 법 전하는 전법의 길에 첫걸음을 하였다. 절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군포교의 원력을 통해 장병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면서도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는 군승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수종 스님
육군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송마나의 **시절인연**

제주 법성도와 감로수

〈法性圖〉

제주도 불교 성지순례 '선정의 길'을 두 차례 나누어 순례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덕사(善德寺)로 들어가는 고즈넉한 숲길은 세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았다. 일주문을 지나자 탁 트인 경관이 신생의 설렘을 안겨 주었다. 오층 석탑을 지나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大寂光殿)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대적광전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 법성도(法性圖)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신라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요약하여 진리의 세계를 7언(言) 30구(句)의 게송으로 요약하여 54각의 사각인(四角印) 속에 새겨 넣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제주도의 형상처럼 연못물 위로 네모반듯한 대리석에 조각된 법성도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법성도를 에워싼 연못물에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 멀리서 병풍을 두르고 있는 한라산 자락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내려앉았다. 빨강, 하양, 얼룩무늬 잉어들이 유유자적 노닐고 있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연못 바닥이 훤히 보였다.

깨끗한 것이 물의 본성일까? 물은 시냇물처럼 땅 위를 흘러가면서 깨끗해지고, 땅속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깨끗해진다. 물은 호수처럼 고요히 가라앉아 깨끗해지고, 바다처럼 세상의 온갖 오염을 받아들여도 정화하여 깨끗해진다. 물은 언제나 깨끗한 물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 아마도 물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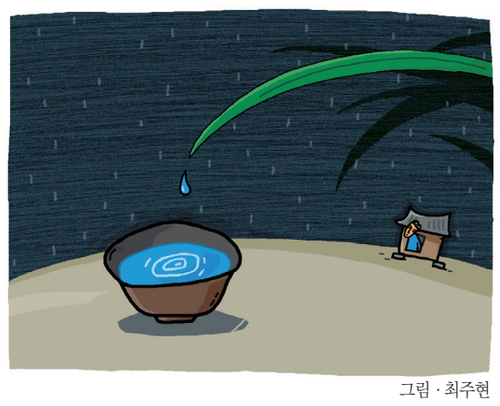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깨끗한 물은 만물을 살려주는 생명수가 된다.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생존할 수 있을까. 지난 8월, 그 뜨거운 목마름에 우리는 고량진미보다는 깨끗한 물 한 잔을 먼저 찾았다. 동물이나 초목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뿐이랴, 물이 없으면 더러워진 몸을 어떻게 씻고, 공장 용수가 없으면 공장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물은 깨끗할 때가 물이지 깨끗하지 못하면 물이 아니다. 생명은 물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생명은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에서 물은 성스러움, 순결함, 거듭남을 상징한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은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깨끗한 물을 그들의 머리와 손에 부었다. 예수가 요단강에 잠겨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입문할 때 욕조에 온몸을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거행한다. 인도의 바라나시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힌두교인이 찾아와 강물 속으로 몸을 담근다. 불교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아기 부처님 상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행한다. 이것은 중생이 오욕의 때를 벗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한다. 즉 깨달음을 얻어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깨끗한 감로수는 병을 치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관세음보살과 약사여래불은 호로병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곤 한다. 병에 담긴 감로수(甘露水)는 달콤한 이슬, 부처님 말씀이다. 감로수는 육체에 깃든 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법성도가 조성된 연못물이 유난히 깨끗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연못 둘레에 서 있는 관세음보살상의 호로병에서 감로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청정한 감로수가 '화엄일승법계' 아닌가.

〈작가〉

기자칼럼

생명나눔 30돌, 그 행복여정을 축하하며

매년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SAVE9)이다.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나눔의 의미가 담겼다. 서울시는 2014년 9월 9일을 맞아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길 바라며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했다고 한다.

불교계에서 장기기증하면 바로 떠올려지는 단체가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가 이사장 소임을 맡아 이끌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다. 올해 10월,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데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뿐 아니라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목표로 환자치료비 지원, 불우이웃 동기 등을 통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왔다.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본부의 정신을 알리는 활동을 다각화하기도 했다. 자살예방 캠페인, 국제구호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캄보디아에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전달한 생명나눔은 앞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창립한 1994년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열악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묵묵히 앞만 보며 달렸고 현재 25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탄탄한 단체가 됐다.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정신이 팽배한 시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0년을 한결같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외치는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난 자비나눔 정신이 우리 사회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더 힘차게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갑작스레 찾아온 뇌출혈,
굳어버린 가장의 몸

대뇌혈관 막혀 몸 절반 마비
입원치료에만 병원비 30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